

단꿈아이 독서지도안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① 심청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1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kumi Cor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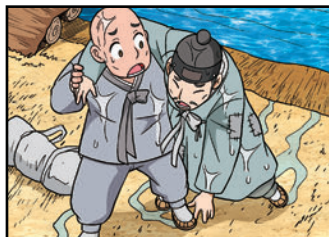
심학규

아이고, 마누라.
이 어린것을 두고
떠나면 어쩌란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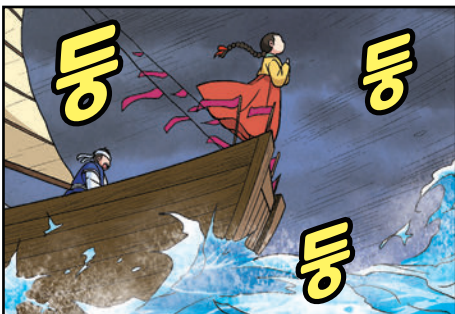
꼭씨 부인이 심청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심 봉사가 젓동냥을 하며 어린 심청을 힘들게 키웠어요.

2



물에 빠진 심 봉사가 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쌀 삼백 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



심청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쌀 삼백 석** 쌀 1석은 약 160kg으로, 오늘날 성인 1명이 2년도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당시 가치로는 초가집 50채도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5

전국 맹인 잔치



심 봉사는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뽕덕어멈과 함께 떠나지만, 도중에 뽕덕어멈에게 버림받았어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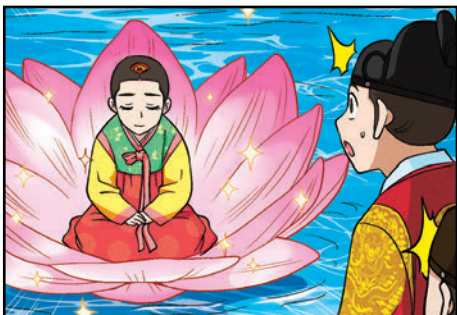
심 봉사와 심청의 만남



심 봉사는 갖은 고생 끝에 맹인 잔치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던 심청을 다시 만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4

왕비가 된 심청



임금

아니, 연꽃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용궁에서 효녀로 대접받으면서 지내다 연꽃에 담겨 세상으로 올라와 왕비가 되었어요.



교수님! <심청전>은 어떤 책이에요?

◆ 우리나라 제일의 효녀 이야기, <심청전> ◆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알려지지 않음

지은 시기 알려지지 않음

갈래 판소리계 소설, 윤리 소설

주제 효, 불교의 윤회 사상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쌀 삼백 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고전 소설이에요. 심청이 훗날 왕비(왕후)가 되기 때문에 <심청왕후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심청전>의 주제는 '효(孝)'예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효녀 심청이 옥황상제를 감동시켜 행복을 누린다는 내용에서 효가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였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엿볼 수 있답니다.

조선 시대에
널리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효녀와 효자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도>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 <삼강행실도>

❁ 다양한 심청 이야기

〈심청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를 ‘이본’이라고 해요. 이본은 크게 ‘완판본’ 계열과 ‘경판본’ 계열로 구분하는데요. 완판본을 줄여서 간략하게 만든 게 경판본이기 때문에, 완판본은 경판본에 비해 분량이 많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책은 완판본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본에서는 〈심청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목숨을 바친 심청이의 효심 덕분에 심 봉사가 눈을 뜬다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이본에서는 심 봉사를 심학규가 아닌 심현으로 부르기도 하고, 심청과 께씨 부인이 본래 선녀였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양반댁 부인이 나 뽕덕어머니 등장하지 않는 이본도 있지요.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 · 선생님께 ◆

지금으로부터 이삼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심청전〉이 우리에게 남긴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남겨 두고 먼 길을 떠난 심청, 열다섯 살의 어린 소녀가 내린 이 야무진 결단은 과연 효일까요, 불효일까요? 또 이웃들이 심청 부녀에게 동냥젓과 다양한 음식을 주어 그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심청전〉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찾게 될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전기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기수는 조선 시대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는 사람을 말해요. 주로 한글 소설을 읽어 주었고, 신화나 전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중국 소설을 읽어 주기도 했어요. 전기수는 자신이 학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선비들처럼 차려입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감 나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문장에 가락을 붙여 시조를 읊듯 낭독했답니다.



▲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전기수의 모습을 담은 그림, <담배 썰기>

❁ 전기수는 왜 생겼나요?

조선 시대에는 이야기책이 매우 유행했어요. 책을 빌려주는 세책점도 있었고, 거리를 다니며 책을 파는 책 장수도 많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가난해서 책을 빌리지 못하거나, 글을 몰라 책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생겼지요.

❁ 맹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 제삿상 앞에서 북과 팽과리를 치는 맹인

옛날 맹인들이 가장 많이 가진 직업은 점술가였어요. 맹인들이 나쁜 것을 보지 않으니 마음이 깨끗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나라에서 나라 일을 점치는 맹인에게 ‘봉사’라는 벼슬을 주었는데요. 나중에는 봉사가 일반적으로 맹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지요.

맹인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부분의 맹인은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데 제격이었기 때문이라합니다.

❁ 정말 사람을 제물로 바쳤나요?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이를 ‘인신 공양’이라고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나 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인신 공양은 신의 보살핌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거나, 신의 노여움을 잠재워 나쁜 일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 스스로 제물이 된 심청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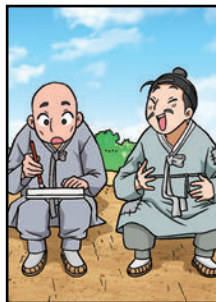
심 봉사가 어린 심청에게 동냥젖을 먹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요즘 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앞을 못 보는 심 봉사가 어린 심청을 안고 더듬 더듬 길을 나서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무척 슬프지요? 그때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냥젖을 먹이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사회 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형편에 쌀 삼백 석을 구할 수 없었을 텐데, 심 봉사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심 봉사는 큰 병을 앓아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다행히 착한 아내가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늘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 심 봉사에게 눈을 뜨게 해 준다고 하니 이것저것 썰 생각도 못 하고 덥석 약속을 한 게 아닐까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은 때로 사람을 무모하게 하거든요.



- ❁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 보세요!



청이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버지가 많이 슬퍼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며 사는 게 심 봉사에게 더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누가 목숨까지 버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왕비가 되고,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된 건 모두 청이의 소중한 마음 덕분일 거야.



쑹쑹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도움을 받고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44

번듯하다 생김새가 흰하고 멀끔하다는 뜻이에요. P.47

눈이 멀다 어떤 일로 시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P.61

부처 불교를 만든 사람으로, '석가모니'라고도 불러요. P.70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법이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75

용왕 바다에 살며 물을 관리하는 용의 왕으로 여겨져요. P.79

사시사철 봄·여름·가을·겨울 내내라는 뜻이에요.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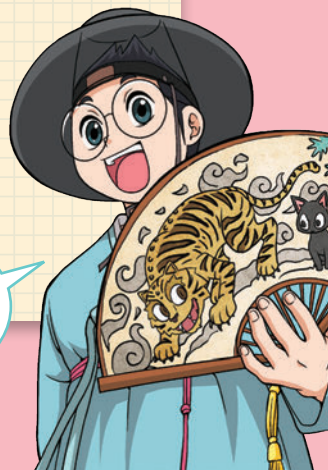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더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95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웬만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100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P.118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 ①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 해 보세요.

“(용왕 / 임금)님께 바칠 여자아이 삽니다.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리겠소.”

- ②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세요.

지나가던 스님이 마침 심 봉사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 주드립니다. 그런데 스님, 심 봉사를 보고 하는 말이
“쫄쫄! 님께 쌀 삼백 석만 바치면
눈을 뜰 텐데!”

- ③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친구 1 : 우아, 이 놀이공원 정말 와 보고 싶었는데!
친구 2 : 나도! 나는 무서운 놀이기구 타고 싶어!
친구 1 : 그런데 점심부터 먹으면 안 될까? 배가 너무 고파.
친구 2 : 그래, 그러자!

- 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②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 ③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4 단어에 알맞은 뜻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① 망연자실 ● | ● ㉠ 시력을 잃다 |
| ② 눈이 멀다 ● | ● ㉡ 멍하니 정신을 잃은 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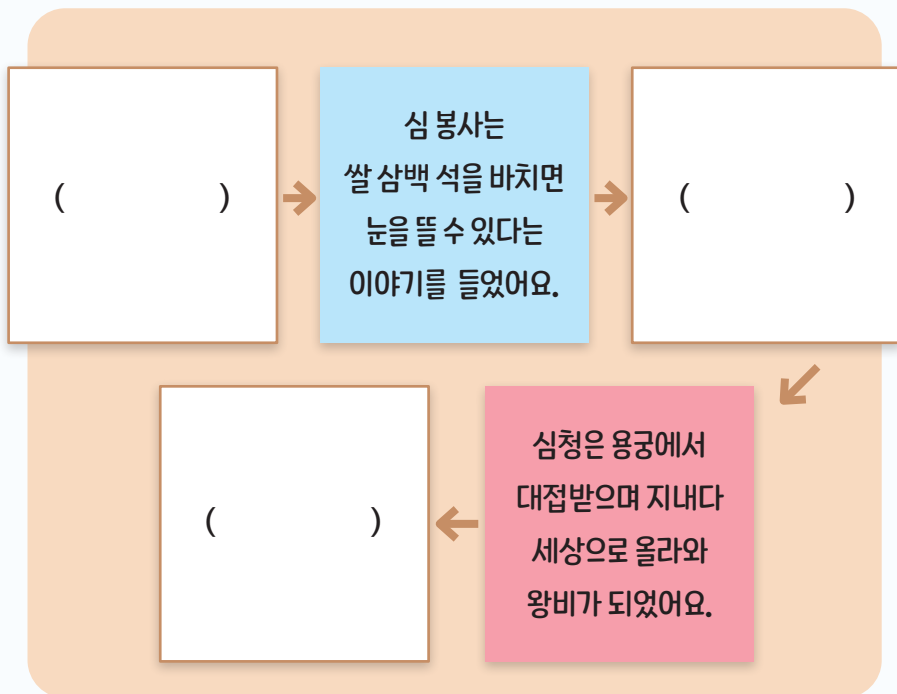
5 <심청전>의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X 해 보세요.

- ① 심청은 심 봉사의 아들이에요. ()
- ② 몽운사 스님이 물에 빠진 심 봉사를 구해 주었어요. ()
- ③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
- ④ 심 봉사는 결국 심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

6 <심청전>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읽고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① 심청: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 ② 뽕덕어멈: 눈먼 저자의 재산이 탐나는데?
- ③ 임금: 연꽃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다!

- 7 <심청전>을 자세히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번호를 써 보세요.



①

심청은
심 봉사를 찾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이 자리에서 심청을
만난 심 봉사는
눈을 떴어요.

②

곽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심 봉사가
젖동냥을 하며
심청을 키웠어요.

③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미호의 독서 일기

1. 청이는 착해도 너무 착하다.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하다.
2. 심 봉사는 불쌍하긴 하지만 너무 바보 같다. 쌀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도, 자기를 돌봐 준다고 나타난 뽕덕어멈도 다 수상해 보이는데 왜 속는 거야!
3. 그래도 심 봉사가 청이를 만나 눈을 떠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설쌤의 독서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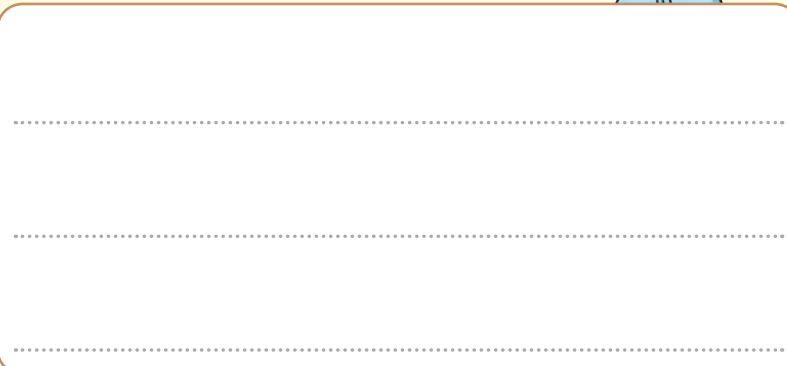
1. 갑자기 전기수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하나는 확실히 느꼈다. ‘효’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
2. 아버지에 대한 효심 하나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왕비의 자리에 오른 청이나, 딸에 대한 사랑으로 젖동냥을 다니며 힘들게 청이를 키운 심 봉사 모두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_____의 독서 일기



🌸 재밌었던 장면, 베스트 3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illegible]

정답 및 해설

1 정답 용왕

2 정답 부처

3 정답 ②

해설 ①은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법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고, ③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웬만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의 속담이에요.

4 정답 ① - ㉠, ② - ㉡

5 정답 ① - X, ② - O, ③ - O, ④ - X

해설 ① 심청은 심 봉사의 딸이에요. ④ 심 봉사는 맹인 잔치에서 심청을 만나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6 정답 ③

해설 임금은 연꽃에서 나온 심청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혼인을 청했어요.

7 정답 (순서대로)②, ③, ①

해설 곽씨 부인이 심청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심 봉사는 젓동냥을 하며 어린 심청을 힘들게 키웠어요. 어느 날, 물에 빠진 심 봉사가 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쌀 삼백 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를 알게 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심청은 용궁에서 효녀로 대접받으며 지내다 세상으로 올라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심 봉사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였고, 이곳에 참석한 심 봉사는 심청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